

Dual Barriers: 교정복지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융합적 관점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Dual Barriers: A Theoretical Approach on Convergent Perspective of Correctional Welfare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ook-Kyung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Jeonju University

요 약 출소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국 법무부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중 장애물(Dual Barriers)”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리뷰를 바탕으로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중 장애물, 장애인 범죄자, 직업재활, 미국의 교정 복지, 교정과 복지의 융합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ex-offenders, this paper needs to provide various ways of helping out-of-pocket-survivors adapt to the local community. One of solutions is the employment link through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A recent study from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found that about 60% of ex-offenders unemployed for one year after their release. In such a situation,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ex-offenders with disabilities may even lower, so called “Dual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trategi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ex-offenders with disabilities presenting the cases in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literature reviews related.

Key Words : Dual Barriers, Offenders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Correctional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 of correctional welfare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1. 서론

취업을 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과 재범 가능성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교정 복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다. 출소이후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이 취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4,5] 미국 법

*Corresponding Author : Sook-Kyung Shin(ssookk73@hanmail.net)

Received June 3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ly 2, 2019
Published July 28, 2019

무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출소자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1년 동안 무직상태에 있는 전과자는 60%인데, 그 이유는 전과기록과 그들의 낮은 독해능력 때문이라고 하였다¹⁾. 또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감 전 무직상태였던 비율도 높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낮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들 때문이었고 게다가 이후 전과를 갖게 되면서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 가능성은 더욱더 낮을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Dual Barriers”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가 장애인이라는 편견과 불신, 그리고 선입견과 함께 이들의 전과기록은 고용 상 이중적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7,8].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과자의 고용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복역기간의 차이와 지적장애 유무의 차이를 두어 구직자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구 참여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나리오 속 주인공의 고용가능성을 평가하는 실험설계 연구이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복역기간이 길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과자의 고용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9].

일반적으로 전과기록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지역사회 통합 가능성을 낮추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특별한 욕구와 특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10].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유형별 재소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신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재소자 및 출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을 포함한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연구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의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인 재소자들에게 적용해본 프로그램 효과성 실험설계연구[11], 직업재활과 치료 및 기타 수사권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역사회 교정 모델을 제시한 연구[12] 정도가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연구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적용되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정신장애인 재소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이다 보니 재소자로서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고, 두 번

째 연구 역시 미국의 정신장애인 범죄자 교정 모델만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보니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델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와 ‘전과’라고 하는 ‘이중 장애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를 대상으로 다양하지는 않지만 직업재활 관련 연구와 현황 보고서가 발표된 미국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필요한 정책 과제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일반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장애인 재소자와 출소자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체계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본적으로 미국 장애인 고용수준 및 빈곤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매년 지역사회 조사(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를 실시하는데, 최근 2017년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ACS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장애인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우선 18세미만은 4.2%, 18~64세는 10.3%,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 대비 35.5%이다[13].

고용률은 2017년 현재, 장애 유형별로 다른데 청각장애인 (51.7 %)과 시각 장애 (43.5 %)가 가장 높았으며, 자립생활생활 (17.0 %) 및 건강장애 (15.5 %)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14].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현재 16세~64세 연령의 재가장애인²⁾ 고용률은 36.4%로 비장애인의 고용률이 79.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은 43.3%, 청각장애인은 52.4%, 보행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25.3%, 인지장애인은 27.2%, 자기 스스로 돌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self-care disability)은 15.9%, 자립생활이 힘든 장애인(independent living disability)의 경우 17.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14]. 또한 2017년 현재, 성인기 미국장애인 빈곤률은 26.1%이며 이는 비장애인의 수치 (10.4%)에 비해 두 배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14].

1) 수감자의 70%가 낮은 수준의 읽고 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됨

2) 대형시설거주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3. 미국의 장애인 재소자 통계와 RSA-911

최근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방감옥(federal prison)에 약 32%, 교도소(Jail)에는 약 40%의 재소자가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0]. 같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재소자 750,000명 중 140,000명이 시각장애 혹은 시력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같은 수의 재소자들이 청각 및 듣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000명은 보행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재소자들이 인지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과자들이 출소이후에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중증도, 기간, 장애로 인한 구체적인 기능적 한계,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반응 및 기대, 장애 발병 및 형사적 징벌 시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15].

2019년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16]에 의하면, 매년 44,000명이 재소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미국교정국(the Bureau of Prison: BOP)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재소자들을 위해 수감 중 재소자들의 직무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이 '재소자 훈련장 확대방안 프로그램(Apprenticeship Initiative)'이다. 현재 약 7,000명의 재소자들이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Expand the Occupat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훈련프로그램은 직무훈련, 능력향상과 필요한 검사와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향상된 직무교육(Advanced Occupational Education: AOE)프로그램은 공인된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직업 교육 또는 교육 훈련에 참여한 수감자는 재범 가능성이 16% 낮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BOP는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경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역량을 확대하여 수감자가 주(states) 또는 미국 고용 및 훈련 관리국에서 승인된 구조화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도록 한다. 또한 수감자는 주로 BOP 직원의 숙련된 기술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미 노동부로부터 수료증을 받는다. 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수감자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된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석방 후에도 취업 기회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교도소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악순환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미국교정국은 지속적인 예산 증진을 통하여 BOP 프로그램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재진입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 지역사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서로에게 윈윈(win-win)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16].

또한 2008년에 제정된 <Second Chance Act>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4월 29일 'Promoting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Formerly Incarcerated Individuals(수감되었던 사람들의 갱생과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Memorandum(대통령 행정 각서)을 덧붙인 바 있다. 이 행정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자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재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에 따른 '사회 재진입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높은 수감률을 유지하는 것보다 재범을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17].

출소 이후 미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은 일반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RSA는 직업재활 보조금 지원을 관리하고, 직업재활상담 및 작업 및 심리치료, 직무·취업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RSA는 매년 공적 직업재활 서비스 관련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RSA-911>수집·관리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주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현황과 어떤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다.

최근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 직업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0.7%정도가 범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RSA-911 설문문항에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의 범죄기록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뿐[19],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필요한 서비스 분석에 활용될 추가적인 정보 즉, 이용자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설문문항의 부재로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직업훈련의 유형 및 비용 등) 및 결과와 관련된 정보(서비스 경과, 유형, 직종, 임금 등)에 대한 분석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Dowden, Ethridge와 Brooks(2016)는 RSA-911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서에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그들에게 필요한 직업전략을 수립하고,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개별화된 직업재활서비스

를 강화해 나갈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8].

이들 연구자들이 제안한 바대로, 장애인 출소자들의 직업재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개인의 고유 한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beyond the barriers

Mizrahi 등(2017)은 최근 '장애와 형사·사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장애인 재소자들에게 성공적인 교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0].

첫째, 장애인재소자들은 비장애인 재소자보다 더 높은 위기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응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쉽(mentorship)을 강화하고,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과 필요한 치료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특수 교육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저해하는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법 시스템상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문제란 상담 평가, 편의시설의 부족, 복잡한 규칙, 약물남용과 독방감금 등이 포함된다. 사법 시스템 과정 안에서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부당한 신념, 거짓 자백 및 형량 등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독방 감금 및 화학제품의 사용을 대폭 줄여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가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이러한 외상 및 약품 사용이 기존의 장애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좀 더 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한 재소자 석방, 지역사회 재진입과 통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정교육, 역량강화, 관련 자료 수집 강화와 고용주 모집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또한 형사 및 사법 시스템 내에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개입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직업재활적 관점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출소자의 취업·창업 현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현재 1,542명으로 전년 대비 8% 감소(1,670명)한 인원이다. 이 결과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취업·창업 인원은 연간 700명 내외로, 2009년부터 구인 및 구직자 만남의 날을 시행하는 등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취업·창업 인원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출소예정자 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취업지원 내실화를 가하며 2014년 구인 및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횟수의 확대 및 구인업체 유치 활동 강화로 취업 및 창업인원 증가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창업 인원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취업인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나(전년대비 5%하락), 2016년 이후 2017년까지 취업인원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1,22].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범률³⁾은 2010년(22.5%) 이후 2018년 현재(25.7%)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정복지의 지향점은 범죄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진입 방법 중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안정이며 앞선 논지대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11] 교정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있는 장애물과 편견에 대하여, 교정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물론 직업재활 전문가도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신장애인이외의 장애인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현황과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관련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련 자료 데이터화를 통하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재활 시설들에 소비자가 되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직업재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 복지 전문가와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교류 및 서비스 적합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적·정책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3) 재범률이란 수형자들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 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이렇게 축적된 통계자료 및 실무적 사례와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 출신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범률을 낮추는 전략들이 수립되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이들의 지역사회 재진입 성공전략은 사회로부터의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격리가 아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개입이며 이러한 개입의 중심에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이 있다.

REFERENCES

- [1] D. P. Farrington, (2003).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Key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Criminology*, 41(2), 221-256.
- [2] D. L. MacKenzie, (2006). *What Works in Corrections? Reducing the Criminal Activities of Offenders and Delinqu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W. H. Min & H. Won. (2017). Impact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ex-offenders on re-offending, *Journal of Welfare in the Corrections*, 8(6), 337-348.
- [4] D. Y. Jeong & J. S. Part.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ehabilitation recipient's job training program. *Social Science Study*, 13(2), 5-25.
- [5]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2011). *Final Report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 [6] M. N. Rodriguez & M. Emsellem. 2011). The Politics of Disabilities, *Ex-Offender Status, and Employment: What Every Rehabilitation Counselor Needs to Know*. http://www.langston.edu/sites/default/files/basic-content-files/The%20Politics%20of%20Disability%20Ex-Offender%20Status%20and%20Employment%20What%20Every%20Rehabilitation%20Counselor%20Needs%20to%20Know-Ethridge_Bowden_Brooks.pdf
- [7] L. P. LePage et. al.(2011). Effects of structured vocational services on job-search success in ex-offender veterans with mental illness: 3-month follow-up.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 Development*, 48(3), 277-286.
- [8] D. A. Harley et. al. (2014). Vulnerability and marginalization of adult ex-offenders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y and employment reintegratio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45(4), 4-13.
- [9] A. Darakai, A. Day & J. Graffam, (2017).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mployment of ex-offenders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Offending Behaviour*, 8(1), 3-12.
- [10] Mazrahi et. al. (2017). *Disability and Criminal Justice Reform: Keys to Success, Respect Ability*. <https://www.respectability.org/wp-content/uploads/2017/05/Disability-and-Criminal-Justice-Reform-White-Paper.pdf>.
- [11] S. J. Kim & Y. S. Kim. (200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house vocational program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serving the sentences in priso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8(1), 57-80.
- [12] K. M. Huh. (2008). The study on the community corrections model for mentally ill offenders, *Correction Review*, 38, 163-191.
- [13]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2017).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www.census.gov/acs/>
- [14] University of New Hampshire. (2018). *2017 Disability Statistics Annual Report*. https://disabilitycompendium.org/sites/default/files/user-uploads/2017_AnnualReport_2017_FINAL.pdf
- [15] D. A. Harley, B. Cabe, R. Woolums & T. Turner-Whittaker. (2014). vulnerability and marginalization of adult ex-offenders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y and employment reintegratio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45(4), 4-14.
-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Prison System. (2019). *FY 2019 Performance Budget: Congressional Submission*<https://www.justice.gov/fmd/page/file/1034421/download>.
- [17] S. Y. Jung. (2016). Rehabilitation grant program in U.S.A - focusing on second chance act. *Yonsei Law*, 29, 93-110.
- [18] A. R., Dowden, G. Ethridge, & M. Brooks. (2016). The Impact Criminal History has on the Employability of African American and Latino Population with Disabilities Receiving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Implications for Adding a Criminal History Variable to the RSA-911 Dat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45, 21-32.
- [19]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May 13, 2019). *Case Service Report (RSA-911) Correction Procedures*. <https://www2.ed.gov/rschstat/eval/rehab/rsa-911-correction-procedures.pdf>.
- [20] Mazrahi et. al. (2017). *Disability and Criminal Justice Reform: Keys to Success, Respect Ability*. <https://www.respectability.org/wp-content/uploads/2017/05/Disability-and-Criminal-Justice-Reform-White-Paper.pdf>.
- [21] National indicator system. (2018a). *Second Conviction Rate*,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58>.
- [22] National indicator system. (2018b). *Employment and Start-up Status of Ex-Offenders*,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6.

신 숙 경(Sook-Kyung Shin)

[장학원]



- 2001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학사)
- 2003년 12월 : 미국 서든일 리노이주립대학교 재활행정 및 정책(석사)
- 2012년 8월 : 미국 서든일리 노이주립대학교 재활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재활학, 장애인복지
- E-Mail : ssookk73@hanmail.net